
풍선 바이러스

이용포 지음 | 김숙경 그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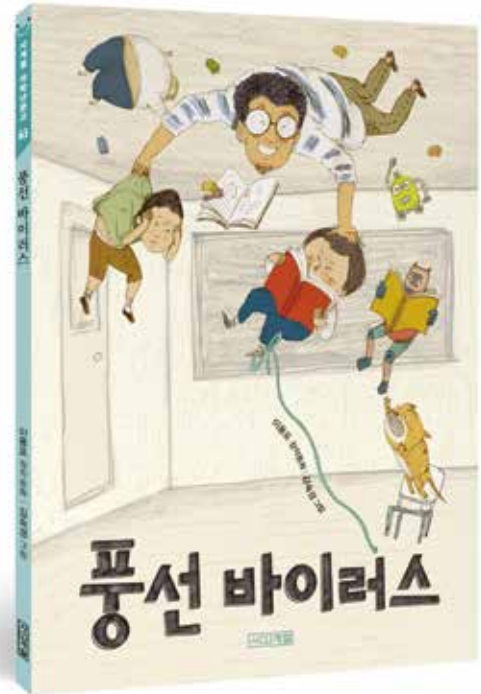
1, 2학년 중심 학년군

국어: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.
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.

슬기로운 생활: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재능과 흥미를 찾고,
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.

3, 4학년

국어: 적절한 표정, 몸짓, 말투로 말한다.
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.



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마음껏 분출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동화다. 기분이 좋아지는 상상을 하면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학교와 집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그려 냈다.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 몸이 풍선처럼 붕 뜨기도 하고, 납덩이처럼 폭 꺼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감정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고,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한다.

학습 목표

이 책은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나 상상 따위는 하지 말고, 더 나은 미래(대학)를 위해 맡은 일(공부)에 충실하고,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어른들에게 던지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이 황당한 것은 곧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. 아이들의 눈에 어른들의 요구는 황당하기 그지 없으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니, 거짓말도 너무 뻔뻔합니다. 이제 어깨 축 처져서 힘겹게 걷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교실 높이, 하늘 높이 등실 뛰어오르게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쫓겨 웃음 바이러스를 줄 수 있는 책입니다.

- 1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여 자기 생각을 이야기 나눕니다.
- 2 책 속에 나오는 인물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역할극을 합니다.
- 3 인물의 특징에 맞게 동물 캐릭터를 그립니다.
- 4 인물의 처지가 되어서 상상해 보고 이야기 나눕니다.



독전 활동

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

➔ 책 표지 그림 살펴보기

- 그림을 살펴보고 교실 안에서 사람들이 등실 떠오르고 있음을 느껴 봅시다.
- 무엇을 하는 걸까요? '풍선 바이러스'와 관련지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나눠 봅시다.
- 표지 중심에 있는 아이는 왜 왼발에 끈이 묶여 있는 걸까요?
- 맨 왼쪽에 있는 아이는 왜 당황해할까요?
- 고양이는 떠오른 걸까요, 뛰어오른 걸까요?

▶ 보이는 대로 궁금한 대로
이야기를 나눠 봅시다.



▶ 풍선 붙여 묶어 두기

- 각자 풍선을 하나씩 붙여 끈으로 묶고 이름을 씁니다. 헬륨 가스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냥 붙어도 됩니다.
- '풍선 바이러스'가 어떤 것인지 상상해 봅시다.
- 풍선을 모두 모아 책을 읽어 주는 선생님 허리에 묶습니다. 선생님은 풍선을 묶은 채로 책을 읽어 줍니다.



▶ 바이러스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. 감기 바이러스, 컴퓨터 바이러스 등 예시를 이야기하면 옳는다, 병이다 정도로 이해할 것입니다.

▶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풍선을 모아 선생님 허리에 묶을 때 아이들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되 선생님이 책을 읽어 주는 것을 킁킁거리며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.

독후 활동 1

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

▶ 어떤 사람이 '풍선 바이러스'에 걸렸나요?

- 상상을 잘하는 어린이, 신나게 놀고 싶은 어린이,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는 어른 등

▶ '풍선 바이러스'의 증세는 어떤가요?

- 등실 떠오른다, 잘 넘어진다, 자꾸 이상한 게 보인다 등

▶ 아이들은 왜 구멍에 빠졌을까요? 자동차 타이어는 왜 펑펑 터졌을까요?

- '풍선 바이러스'를 없애서, 아무것도 못 하게 해서, 아이들이 너무 무거워져서 등

▶ 이수는 왜 어깨에 풍선을 열 개나 매달았을까요?

- 재미있는 것을 하나도 못 하게 해서, 아무것도 신이 안 나서, 학교가 재미없어서, 상상하기도 싫어져서, 이수의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등



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



▶ 나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!

- 책 속에 있는 오리 잡아먹는 개구리, 사람 피 빨아 먹는 독수리만 한 모기, 구름 똥 싸는 구름, 이마에 주름이 백 개나 있는 오랑우탄, 뱀처럼 보이는 엄마의 그림을 보여 줍니다.
- 아무도 믿어 주지 않지만 '나 이런 거 본 적 있다!' 하는 것을 그려 봅니다.
- 본 적은 없지만,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려 봅니다.
- 서로의 그림을 감상합니다.

▶ 가능한 크게, 신나게 그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.



▶ '풍선 바이러스'에 걸린 사람을 찾습니다!

- 어떤 사람이 '풍선 바이러스'에 걸렸을까 또는 걸릴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.
- '사람을 찾습니다' 유인물처럼 '풍선 바이러스' 특징이 드러나게 포스터를 만듭니다.
- 찾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 줄지 적어 봅니다.
- 우리 중에는 누가 '풍선 바이러스'에 걸렸는지, 선생님도 걸렸는지 물어봅니다.

▶ 우리도 할 말 있어요!

- 책 속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?
- 두세 명이 함께 할 말을 정해서 피켓을 만듭니다. 피켓 모양이 아니어도 두꺼운 종이에 크게 적으면 됩니다.
- 구호처럼 함께 외치고, 왜 그렇게 정했는지 까닭을 말해 봅니다.
-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.

▶ 풍선 날리기

- 선생님 몸에 붙어 있던 풍선을 하나씩 받아 자기가 퍼뜨리고 싶은 바이러스를 매직으로 풍선에 적습니다.
- 헬륨 가스가 든 풍선이라면 밖에 나가 하나씩 외치면서 하늘 높이 던져 봅니다.
- 그냥 풍선이라면 들고 다니며 놀기도 하고 시원하게 터뜨려 봅니다. 바이러스가 퍼지도록.